



드디어 막내가 학교에

나의 넷째, 사남매 집 막둥이가 드디어 학교에 간다. 평생 아기로 머물 것만 같던 우리 집 귀염둥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니 나이 든 엄마는 괜히 감정이 격해진다. 막내가 출산 직전 배 속에서 몸을 거꾸로 돌리는 바람에 응급 수술로 세상에 태어나 만세 살 직전에 기저귀를 졸업하고 “me want agua 빨리”와 같이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 (보모가 멕시코) 3개 국어를 오묘하게 섞어 말하던 시절이 엇그제 같은데 말이다. 이제는 형과 누나가 놀리면 마냥 당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지킬 줄 알며 얼마 전부터는 혼자 화장실 뒤처리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얼마나 능숙한지는 확인 불가) 자기가 글을 못 읽어 선생님이 혼을 내면 어떡하냐며 걱정도 하는 어린이가 되어가고 있다.

나는 내 입학식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한다.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훨씬 전의 일들도 드문드문 기억을 하는데 입학식은 아무리 곰곰이 떠올려도 아무 기억이 없다. 과천 청계국민학교를 입학해서 한 학기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갔기 때문인지 오빠 입학식 사진은 존재하건만 내 입학식 사진은 한 장도 없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다. 꾸역꾸역 억지로 떠올려보는 가슴팍 가재 수건 명찰과 운동장에 반별로 줄을 섰던 풍경은 티브이에서 본 입학식 장면인지 내 경험의 기억인지 분간할 수 없다. 아무런 기억이 없지만 학교라는 웅장하고 낯선 곳에 들어서며 느꼈던 중압감만은 아련히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입학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의 첫 시작이니만큼 아이뿐 아니라 엄마도 걱정이 앞선다. 물론 유치원에 다니긴 했지만 아기가 다정다감한 누나 같이 예쁜 선생님이 급식도 가져다주고 화장실 뒤처

리도 도와주고 수시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던 환경과는 천지 차이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게 당연하다. 화장실이나 제대로 갈까, 아직 한글도 다 떼지 못했는데 선생님 눈총을 사면 어쩌나, 친구들과 사이에서 모난 행동을 해서 왕따라도 당하면 어쩌지 등등 엄마 특유의 노파심을 최대한 끌어모아 갖은 걱정을 다해 본다. 모든 게 부질없고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기 섭섭해서인지 엄마의 숙명 같은 것인지 또 그렇게 나의 전공은 시작된다.

모든 부모들이 기본적으로는 “튼튼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편에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물론 운동도 적당히 하고 교우관계도 좋고 선생님께 사랑도 받는 학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아이 셋을 먼저 학교에 보내며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자녀는 부모가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보니 공부나 일은 원래 하던 것보다 시간을 투자하고 몰두하면 바로 성과를 볼 수 있었고 연애도 진심만 통하면 그럭저럭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갔는데 자식만큼은 뭘 해도 내 마음과 같지 않았다. 아무리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육아 관련 서적을 섭렵하고 괜찮은 부모 노릇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나는 아이 마음 하나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한낱 답답한 엄마에 지나지 않았다.

옆에서 부모가 조바심을 내고 뒤달할수록 나만 괴롭고 아이는 저만치 멀어져 간다. 때로는 아무리 애가 타고 안타까워도 부모가 억지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자기 자식을 이모가 조카 바라보듯, 아줌마가 옆집 아

이 바라보듯 키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다. 정말 부모가 그저 아이를 믿어주고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전부일 때도 있다. 지금도 나는 입학하는 막내를 위해 책가방과 실내화 주머니를 챙겨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기도할 뿐이다.

“막내는 사랑, 꽃보다 막내! 너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굶은 날씨, 모진 풍랑을 엄마가 대신 맞아줄 수는 없지만 함께 맞아줄 수는 있으니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부딪혀보렴. 하라! 그러면 힘이 생길 것이다!”

이는 어쩌면 새롭게 도약하는 만 여섯 살 아들뿐 아니라 막내를 입학시키는 나이 지긋한 애베틀 맘 나 자신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일지도 모르겠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주>



※ 새집 분양, 엘바인 및 레이크포레스드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3 1,562sf 대지 6,500sf \$550,000	요바린다 타운홈/콘도 방 3 화 3 2019년생 1,669sf 3층구조 \$730,000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05sf 대지 6,320sf \$690,000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1 화 1 700sf \$2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1 1,100sf 넓은 대지 6,100sf \$590,000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40 sf 대지 6,000sf 완전 리모델링 한집 turn key \$690,000	요바린다 단층 하우스 방 2 화 2 1,056sf 대지 5,000sf 1984년생 \$540,000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3 1,496sf 대지 5,150sf 한인 상권 가까운 곳 위치 \$5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83sf 대지 6,000sf 은행교회 아리랑마켓 가까운 곳 \$5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37sf 넓은 대지 7,000sf 좋은 학교 \$61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전체 리모델 방 5 화 2 1,665sf 대지 7,500sf 새 부엌, 새 appliances move in ready \$690,000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2 화 3 1,362sf 완전 리모델링한집 트로이고등학교 도보거리 \$540,000
엘바인 타운홈/콘도 방 2 화 3 새 마루 새페인트 1,460sf West Irvine \$650,000	엘바인 콘도 2006년생 1,052sf 방 2 화 2 일층 위치 fully furnished \$520,000	엘바인 콘도 방 3 화 4 1,590sf 2020년생 포들라 Brisa \$728,000	엘바인 타운홈 2002년생 방 3 화3 1868sf 낮은 HOA 게이트 단지 \$789,000
*부에나팍 새집 분양 3층 구조 *교통과 위치 좋은 곳 1. 방 2 화 2.5 1,250sf \$500,000 부터 2. 방 3 화 3 1,500sf \$550,000 부터	*브레아 새집 분양 3층 구조 2,253sf 방 3개 부터 방 5개까지 탁트인 오픈 플로워 플랜* 학교 좋은 지역 \$690,000~	*위티어 새집 분양 2층 또는 3층 방1~방4 구조 900sf 부터 1,950sf까지 최신 시설 커뮤니티 센터 (피트니스, 수영장 등등) \$290,000~	라미라다 시니어 단지 방 1,2,3 (55세 이상) 24시간 가드 상주 넓은 게이트 단지 한국 마켓 가까운 곳 위치 \$290,000~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